

문화



아시아밖음공동체 회원 시게코(사진 오른쪽)씨 등은 한국어와 아시아 각국 언어로 동화구연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엄마가 만든 엄마나라의 동화 재밌어요”

‘우리나라엔 ‘콩쥐팥쥐’, 그림 엄마 나라 동화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이들이 처음 언어를 익히고, 풍습 등을 배우는 건 동화책을 통해서다.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은 한국 뿐 아니라, 엄마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아야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는 동화책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지난 2006년 결성된 후 주로 한국어 교육 등에 주력했던 아시아밖음공동체(센터장 도제 스님)는 지난 2010년부터 한국어와 아시아 각국의 언어로 동화책을 펴내는 ‘아시아밖음공동체 다문화 전래 동화 시리즈’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기획은 ‘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쌍방 교류가 없는 기존의 활동들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아이와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고, 생각해 낸 게 바로 전래동화였다. 전래 동화를 통해 문화를 배우고, ‘우리 엄마도 정말 멋진 나라에서 왔구나’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0년 첫 권 ‘백마타 대나무’ (베트남)가 나왔고 지난해 ‘마람의 신비한 붓’(중국) 등 2권에 이어 이번에 ‘마술석궁’(베트남) 등 5권이 한꺼번에 나왔다.

번역할 동화책은 이주 여성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정한다. 의미있고 재미있는 동화책을 고르고 나면 영어본으로 먼저 검토하고, 해당 언어 능통자가 번역하고 또 다시 검토하는 등 여러차례 감수 절차를 거친다.

애플음공동체, ‘다문화 전래동화시리즈’ 8권 발행

이주여성 자원봉사자 참여... 각국 언어로 동화구연

동화책 작업이 의미있는 건 자원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교사, 화가, 스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두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스리랑카 동화인 ‘세왕자 이야기’는 스리랑카 수트나 고등학교 교사인 루브르 싱하씨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담마 스님이 번역을 맡았으며 베트남 동화 ‘백마타 대나무’는 애플음공동체 김기현 실장과 이미경 부부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번역해 제작했다.

또 중국 동화 ‘동과 선생과 늑대’는 초당대 중국어과 교수인 황지유씨가 참여했으며, 몽골 동화 에르히 메르케’에는 동화책 그림을 많이 그리는 화가 정현주·김향자·이수연씨가 참여했다. 또 일본 동화 ‘아이는 보물’에는 정은경·김현정씨가 힘을 보탰다.

올해부터 시작한 동화구연 역시 의미 있는 행보다. 김소연(색동화 이사)씨 등 한국인과 다문화 엄마들이 2인 1조가 돼 유치원 등에서 동화구연을

진행한다. 한국어로 먼저, 각국 언어로 반복하는 동화구연에 아이들의 관심이 높다. 엄마들은 동화구연에 필요한 교구도 직접 만들고, 전문 강화를 듣는 등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시게코(42)씨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걸 좋아한다. 한국과 일본 전래 동화에 비슷한 게 많아 흥미로웠다

시게코씨는 얼마전에는 동화구연 자 격증도 됐다.

현재 동화구연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진 샤오링(37)씨는 “다음 시간에 가서 아이들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걸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밖음공동체는 최근 광주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광주 시 동구 계림동 광주고 인근에 사무실을 열고 다문화 가족 아이들과 저

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도 마련했다.

아시아밖음공동체 양홍숙씨는 “저도 프랑스와 중국에서 8년을 살았는데, 외국에서 살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는 게 참 어려웠다”며 “아이들이 엄마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자부심을 가지면 한다”고 말했다.

http://cafe.daum.net/abchub.
문의 062-236-010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상과 회화, 화려한 빛의 마술

진시영 개인전 10일까지 담양 대담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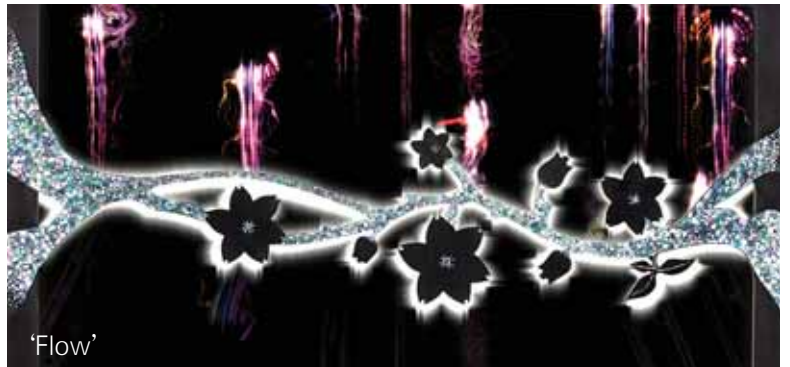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씨가 10일까지 담양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에서 여는 전시는 빛을 소재로 영상·회화를 넘나드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전시는 대담미술관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내놓은 결과물로, 지난해부터 꾸준히 선보여온 그의 대표작인 ‘흐름(Flow) 작품’을 한 데 모아놓은데다, 전통 소재인 나전칠기를 영상에 활용하거나 태양의 움직임을 LED로 표현한 ‘물결(Wave)’, 운주사를 미디어 영상과 결

합한 작품 등 16점을 선보인다.

진씨의 대표작들이 총 망라되는 만큼 미디어 아트에 대한 작가의 넓은 스펙트럼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대 미술의 한 흐름임에도 여전히 낯선 미디어 아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이기도 하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적 감수성을 표출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들여다보는 것도 관람을 뜻 있다. 문의 061-381-0081.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대계서원’ 144년 만에 다시 조성

은봉 안방준 선생 제향, 10일 개원 청소년교육장 활용

조선 중기의 학자·저술가인 은봉 안방준(隱峰 安邦俊)을 모신 ‘대계서원’(大溪書院)이 144년 만에 다시 세워진다.

(세은봉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안준)는 오는 10일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옛 대계서원 부지 일대에서 서원 준공식을 갖는다. 4일 밝혔다. 1868년(고종 5년) 서원철폐령으로 헐렸다가 144년만에 다시 조성되는 것이다.

23여여원을 들여 8200여㎡ 부지에 조성된 서원에는 조문사·송도문·격치재·성정재·전사정·은봉유물전시

관·장절문 등이 들어섰다.

대계서원은 은봉 안방준 선생을 모신 사액 서원으로, 은봉은 1573년(선조 6년)보성읍 우산리에서 태어나 박광전·성혼 문하에서 수학했고,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 한평생 처사로 자처하며 교육과 저술에 몰두했으며, 참된 선비가 지녀야 할 정신과 기풍을 환기하는 데 주력했다. 대계서원은 앞으로 평생교육과 청소년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찾아가는 해양박물관’

5~8일 신안 도초 중·고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성낙준)는 5일부터 8일까지 신안군 도초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박물관’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신안교육지원청의 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문화재연구소측은 행사 기간 비금·도초도의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와 수중출토 문화재 사진, 각종 선박 모형 등 80여점을 전시, 선보인다.

고려 청자 파편을 직접 만져보고 관련 설명을 듣는 가운데 수중 잠수 장비를 입어보거나 전통 한식 제작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문의 061-270-2042.
/김지을기자 dok2000@

낙엽지는 가을, 색소폰과 함께

아라벨라 정기연주회, 6일 금호아트홀

색소폰 동호인들의 모임인 아라벨라(Arabella·신성한 제단) 4번째 정기연주회가 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난 2006년 첫 모임을 꾸린 아라벨라는 최근 많이 결성된 색소폰 앙상블 가운데 특이하게 클래식 음악을 주로 연주하는 단체다.

채현석(광주시립교향악단원)씨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연주회의 레퍼토리는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요한 스트라

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비제의 ‘카르멘’, 포레의 ‘파반느 작품 50’ 등이다. 그밖에 비블스의 ‘헤이주드’와 SG워너비의 ‘사랑해’ 등 팝송과 가요도 들려주며 메조소프라노 김영실씨가 찬조출연, ‘신아리랑’ 등을 들려준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선창배씨가 지도하고 있으며 오봉렬·이상욱·이태엽·최소영·최영욱·최의권씨 등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http://cafe.daum.net/arabella.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